

‘논란의 남자’ 엠씨더맥스의 이수, 뮤지컬 ‘모차르트!’ 출연

뮤지컬 매니아들 발길 ‘뚝’ 끊기나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도덕성 문제가 너무 커 제작사 측 “변경없이 진행”



그림 ‘엠씨더맥스의 보컬 이수(35·전광철)’의 뮤지컬 ‘모차르트!’ 캐릭터 프로필.

그들 ‘엠씨더맥스’의 보컬 이수(35·전광철)의 뮤지컬 ‘모차르트!’ 출연을 놓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초 이수가 ‘모차르트!’로 뮤지컬에 데뷔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다. 특히 마니아 층이 많은 ‘모차르트!’ 팬들은 작품에 대한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앞서 이수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던 2009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어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약 7년 간 자숙한 이수에게 가혹한 잦아드는 의견도 있으나 그의 도덕을 문제삼는 의견의 기세가 더 맹렬하다.

올해 1월 엠씨더맥스 8집 ‘파토스’를 발매하는 등 가요계에 복귀한 이수지만 아직 방송 출연은 원활하지 못하다.

지난해 MBC TV ‘일밤 - 나는 가수다’ 시즌 3 출연을 타진했으나 시청자들의 항의로 막판에 불발되기도 했다.

뮤지컬 팬들은 TV보다 대중의 관심이 적은 무대가 만만하냐며 항의를 하고 있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상징하는 ‘아마데’ 캐릭터로 아역 배우가 등장하는데, 이수가 해당 아역과 함께 등장하는 것 역시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공연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는 물론 대관극장인 세종문화회관에게도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이수 하차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 중이고, 일부 팬들은 ‘이수 하차’를 내건 지하철 광고를 위해 모금도 시작했다.

논란의 인물이 뮤지컬 무대를 통해 본격적인 대회 활동을 복귀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논란에 휩싸였던 연예인들이 뮤지컬 무

대를 통해 복귀를 시도하는 건 대중의 심리적인 저항감이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종전 뮤지컬 기획사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노출돼 있는 TV보다 마니아 장르로 여겨지는 뮤지컬은 연예인들에게 부담이 적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수의 복귀 시도는 다소 복잡하다. 여러 이해 관계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차르트!’ 제작사인 EMK는 연예인 스타 캐스팅으로 이름이 났다. 그러나 이수는 엄밀히 말하면 스타 캐스팅이 아니다.

6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르는 이번 시즌의 ‘모차르트!’는 퀴드러플 캐스팅이다.

이수를 비롯해 이지훈, 전동석, ‘슈퍼주니어’ 규현이 번갈아가며 타이틀롤을 맡는다. EMK는 다양한 관객층의 끌어들이기 위해 이수를 선택했다. 가창력이 필요로 한 역인 만큼 그의 노래 실력도 염두한 건 물론이다. EMK 역시 장고를 거듭해 그의 캐스팅을 진행한 만큼 우선 변경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주목할 부분은 이수의 소속사 뮤직앤유다. 영화배급사로 출발한 종합엔터테인먼트사 NEW의 자회사다. 이 회사는 공연제작사인 쇼엔뉴를 또 다른 자회사로 두고 있다. 뮤지컬 ‘디셈버’와 연극 ‘올드위키드쇼’를 제작한 곳이다.

이수의 뮤지컬 데뷔 무대는 활동 반경을 다양한 장르로 넓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주목하는 부분이다. 뮤직앤유는 이수의 뮤지컬 데뷔가 다른 활동을 위한 발판이 아닌, 뮤지컬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항변하고 있다.

고가의 티켓값을 지불해야 하는 뮤지컬의 팬심은 대단하다. 이수가 출연하는 회차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시선이 있으나 “‘모차르트!’ 브랜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다.

뮤지컬 관계자는 “성장이 둔화된 현재 뮤지컬 시장에서 이번 팬들의 움직임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지 두고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도체육회, 국군체육부대 배구·하키팀과 협약

전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20일 국군체육부대 하키·배구팀과 연고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 온 국군체육부대가 17개 시·도 중 육성팀이 없는 시·도에 우선 선택권을 쥐 종목의 저변확대와 시·도의 전력을 맞추기 위해 추진돼 왔다.

연고협약을 통해 국군체육부대 배구와 하키팀은 전라북도 소속으로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된다.

전북도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배구와 하키팀이 우리도와 연고협약을 맺어 실업팀 창단의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고, 전력향상에 크게 기여가 될 것이다”며 “연고협약은 3년 까지 연장을 할 수 있어 2018년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제 99회 전국체육대회까지 우리도 소속으로 뛸 수 있게 됐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한편, 국군체육부대 배구팀은 실업 최강팀으로 각종 전국대회에서 1위를 뽐낸 싸움이 한 바 있는 강팀이고, 하키팀 역시 전국 4강권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국종별 핸드볼 선수권 고창서

‘제 71회 전국종별 핸드볼 선수권대회’가 고창군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와 주최하고 고창군통합체육회가 주관해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6일간 고창군립체육관과 고창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회 기간 동안 남녀 초등부 31개 팀과 남자 일반부 5개 팀 등 총 36개 팀 1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친다.

여자초등부는 16개 팀이 4개조로, 남자초등부는 15개 팀이 4개조로 나뉘어 오는 22일까지 조별 예선리그 45 경기를 치른 뒤 결선 토너먼트를 거쳐 25일 종별 결승전을 갖게 되며 남자 일반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리그전 5경기를 치른다.

개회식은 20일 군립체육관에서 박우정 고창군수와 대한핸드볼협회 최병장 상임부회장, 선수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환영사에서 “핸드볼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제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고 국위를 선양하는 종목으로 사랑받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도 활기차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핸드볼 본래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편안하고 쾌적한 경기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컨셉 남돌’의 5번째 싱글앨범, 질투의 신 ‘젤로스’

그룹 빅스, 타이틀곡 ‘다이너마이트’ 서 질투 다뤘

그들 ‘빅스’가 다섯 번째 싱글앨범 ‘젤로스(Zelos)’로 컴백했다. 이번에는 그리스 신화 속 질투와 경쟁의 신 ‘젤로스’다.

뱀파이어, 지킬&하이드, 저주 인형, 사이보그에 사랑의 노예까지. 데뷔 후 내놓은 앨범마다 색다른 콘셉트를 무대에서 구현했던 그룹 ‘빅스’의 여섯 번째 판타지다.

타이틀곡 ‘다이너마이트’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질투로 눈이 멀어 ‘세상을 뒤집어쓰러도 널 가지겠다’며 폭발하는 질투심을 표현한 곡이다. 질투와 경쟁을 상징하는 포식 이블 아이(Evil Eye)를 곳곳에 사용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밝은 곡 ‘이별공식’에서 보였던 마냥 귀여운 모습과는 달리 밝고 핑키하지만 멋진 모습이 포인트

다. 생생한 색깔이 돋보이는 개성 있는 의상과 얼굴에 찍은 주근깨, 노랑계 탈색한 금발 머리카락 등으로 멋을 더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무대에서 스토리를 강조하는 뮤지컬적인 퍼포먼스를 했던 것과는 달리 세련되고 단순한 춤을 준비했다. 외국의 유명 안무가 이안 이스트우드와 나나스쿨의 합작품이다.

질투의 신 ‘젤로스’는 빅스의 1년을 완성할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앞서 빅스는 신화 속 운명과 파멸을 상징하는 신 ‘케르’를 콘셉트로 하는 1년 장기 프로젝트인 ‘빅스 2016 콘셉션(VIXX 2016 CONCEPTION)’을 공개하며 올 한 해 팍 찬 활동을 예고했다.

/정해은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